



2025년 제4회 번역경진대회

번역 과제 텍스트

Das Rad an meines Vaters Mühle brauste und rauschte schon wieder recht lustig, der Schnee tröpfelte emsig vom Dache, die Sperlinge zwitscherten und tummelten sich dazwischen; ich saß auf der Türschwelle und wischte mir den Schlaf aus den Augen; mir war so recht wohl in dem warmen Sonnenscheine. Da trat der Vater aus dem Hause; er hatte schon seit Tagesanbruch in der Mühle rumort und die Schlafmütze schief auf dem Kopfe, der sagte zu mir: „Du Taugenichts! Da sonnst du dich schon wieder und dehnst und reckst dir die Knochen müde und lässt mich alle Arbeit allein tun. Ich kann dich hier nicht länger füttern. Der Frühling ist vor der Tür, geh auch einmal hinaus in die Welt, und erwirb dir selber dein Brot.“ „Nun“, sagte ich, „wenn ich ein Taugenichts bin, so ist’s gut, so will ich in die Welt gehen und mein Glück machen.“

출제 텍스트에 관하여

위 출제 번역텍스트는 Joseph Freiherr von Eichendorff의 „Aus dem Leben eines Taugenichts“에서 발췌한 텍스트다. 후기 낭만주의 작가인 아이헨도르프(1788-1857)는 이 작품을 1826년에 출판했으며, 낭만주의 문학 중 청춘 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독일에서는 중고등학교 독일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학생들에게는 필독서로 읽히기도 한다.

과제 해설

본 텍스트를 번역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어휘 차원
- 문법

먼저 어휘 차원을 살펴보면, 주인공을 지칭 또는 호칭하는 Taugenichts를 어떻게 번역하는지가 중요하다. 한 단어로 „백수“로 번역하거나, 설명적으로 „쓸모없는 녀석“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밖에 문화적인 요소가 포함된 „Schlafmütze”의 번역도 주의해야 하는데, 현대에는 겨울에도 잠을 자는 공간의 난방이 충분하여 “잠을 잘 때 쓰는 모자”를 착용할 필요가 없어서 “Schlafmütze”가 “잠꾸러기”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번역 텍스트에서는 “잠을 잘 때 쓰는 모자”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이 어휘를 “수면 모자”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의 차원을 넘어 숙어 표현에 대한 지식도 본 텍스트를 번역할 때 필요하다. “Der Frühling steht vor der Tür”란 표현은 „곧 봄이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sein Brot erwerben” 역시 숙어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돈벌이를 하다” 또는 “먹을 것을 직접 벌다”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sein Glück machen/versuchen”이란 표현은 “운명에 맡기다” 또는 “성공하다”란 의미의 숙어다.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현대 독일어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2격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an meines Vaters Mühle”). 문법적으로 격을 규명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어휘 차원, 표현 차원 그리고 문법적인 부분의 올바른 번역이 중요하다.

심사 기준

채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문법
- 텍스트 이해능력
- 표현력
- 텍스트 완성도

문법 항목에서는 한국어 문장의 문법이 맞는지, 특히 주술호응, 격조사의 올바른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텍스트 이해능력은 원문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는데,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적절한 번역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

표현력은 어휘 차원과 문체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brausen”, “rauschen”, “tröpfeln” 등 독일어의 동사들은 한국어에서 적절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를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했는지가 평가된다. 또한 올바른 번역어를 찾아 표현한 것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본 텍스트는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장의 구성과 표현의 방식이 문학작품의 문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항목으로 살펴보게 된다.

텍스트의 완성도 항목에서는 일관적인 문체의 유지, 적절한 표현력, 전체적인 텍스트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